

美 버클리대 이기홍군이 말하는 '공부 잘하는 비결'

“축구·야구 처럼 재미를 찾아라”

광주 어룡초교 'u스타와의 만남' 강연

자신있는 과목부터 공략을
자신과의 질문 습관화하라

요즘 주변에선 미국 등 외국 명문대를 합격한 학생을 종종 접할 수 있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국내 명문대학 진학도 어려운데, 외국 명문대 합격이냐”라며 합격한 학생은 분명 천재일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때부터 길러진 공부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자신의 노력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법이 유명 대학 진학의 밑바탕이 됐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8일 학생 재능진단 시범학교인 광주 어룡초등학교(교장 박영현)에서 열린 'u스타와의 만남'의 강연자로 나선 이기홍(20·미국 버클리대 2학년)군도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 습관을 강조했다.

'u스타와의 만남'은 광주시교육청이 5개년 계획으로 시행중인 u-러닝프로젝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인물의 강의를 듣는 것이다. 어룡초교는 앞으로 프로야구 스타인 이종범 선수를 비롯한 의사, 법조인, 대기업 CEO, 유명 요리사 등의 강의를 마련해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줄 계획이다.

이기홍군은 이날 어룡초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 잘하는 법'을 주제로 1시간여 동안 강의를 했다. 이기홍군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비결을 들여다봤다.

이기홍군은 공부 잘하는 첫번째 비결로 공부에서 재미를 찾는 것을 주문했다.

이기홍군은 “공부를 축구나 야구처럼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해야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다”면서 “공부에 흥미가 없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2학년인 이기홍군이 28일 광주 어룡초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u스타와의 만남' 주제 특강에서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생은 여러 과목들 중 자신있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단 자신있는 과목을 통해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면, 공부하는 비결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고, 이를 다른 과목의 공부에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기홍군은 두 번째 비결로는 “자신과의 질문을 습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부를 하는 동안 습득한 지식에 대해 자신과의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한다”면서 “교과서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적어놓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적은 질문 문구가 다소 '바보'같은 질문으로 생각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부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러한 기본적인 공부 습관을 익힌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홍군은 “1년 아래인 동생도 이같은 학습법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면서 “초등학교 시절 공부하는 습관을 익히고, 꾸준히 공부에 매달린다면 공부도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캠퍼스 소식

목포대 러 국립 사범대 총장에 名博

목포대학교는 28일 오전 10시 대학 플라자60 강당에서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드로즈도프'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국립 사범대학 총장(사진)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학술교류 협력을 강화시키고 발전시켰다.

드로즈도프 총장은 지난 1997년 크라스노야르스크 국립사범대학 총장으로 선출된 이래로 탁월하고 우수한 학교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3선의 총장으로 선출, 대학 발전에 기여했다.

2001년 7월 16일 목포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공동심포지엄 개최, 학생교류 및 다양한 체육활동 교류를 통하여 양교의

특히, 고교 학생으로 러시아 예니세이강 주변의 구석기 시대 연구활동 등 총 257편의 논문을 발표해 고교 학생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2003년 고교학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러시아 우수 과학자상을 수상했고, 탁월한 대외 업무 조정 및 통합 능력을 발휘해 고교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대 입학사정관 양성과정 1.7대1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과정 모집에 전·현직 교장, 교감을 비롯해 대학 교수, 병원장, 언론인, 군인 출신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최초로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과정을 운영기로 한 전남대학교는 최근 1기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총 30명 모집에 51명이 지원해 1.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현직 중·고교 교장을 포함해 교사, 행정실장, 장학사 등 일반 학교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대학 강사와 학원장 등 교육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기관 연구원 출신을 비롯해 대기업 사원, 경영학과 병원장과 성직자, 군인 출신 등도 입학사정관 양성 과정에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순천대 분산시스템연구팀 우수논문상

순천대학교 정보통신학부 분산시스템연구팀이 제19차 한국인터넷 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신상선 교수가 이끄는 분산시스템연구팀은 최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GPS&UMPC 기반 기준점 현장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현'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이 같은 성

과를 거두었다. 순천대 분산시스템연구팀과 신명유아이(주)의 산학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는 IT기술을 활용해 국토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기준점관리장의 자동화와 일관된 자료처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

조선대 패션디자인학과 졸업 패션쇼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선보이는 패션쇼가 28일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 1·8극장에서 열렸다.

THE METAPHOR OF SPACE(공간의 은유)를 주제로

박순천·손영미 교수의 지도를 받아 39명의 학생들이 펠라 꿈으로 만든 창의적이며 화려한 작품이 만연해 펼쳐졌다. 총 7가지 스테이지로 구성되는 이 쇼는 교내 장미원과 어울려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무용 명문' 광주예고 4~5월 전국 콩쿠르 휩쓸어

광주예술고등학교(교장 윤영월·이하 광주예고)가 성균관대 주최 무용경연 등 4~5월 두달간 열린 전국 규모 콩쿠르에서 각종 상을 휩쓸면서 '무용 명문'의 입지를 다졌다.

김옥희·박정현 교사가 지도를 맡고 있는 광주예고는 제 38회 세종대 주최 무용경연대회에서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출품한 현대무용 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정윤정(3년)양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 11명이 개별 입상했다.

이어 열린 제 19회 성균관대 주최 무용경연대회에서는 역시 현대 무용 군무팀이 단체 금상을 받았으며 발레 부분의 백지혜(3년·금상)양 등 9명이 수상

했다. 또 중앙대·단국대·한국종합예술대 콩쿠르에서는 개인 부문 참가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중앙대 주최 경연에서는 김빛나(현대무용·3년)양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7명이, 단국대 무용경연에서는 한국무용 정민근(1년)군 등 4명이 입상했다.

그밖에 제 12회 전국 남·녀 초·중·고생 무용경연대회와 시장배정발 전국 무용경연대회에서는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광주예고는 정규 수업 이외에도 주 3회 방과후 교육으로 무용과 전공수업을 실시, 학생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시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근 열린 각종 무용콩쿠르에서 상을 휩쓸며 '무용 명문'을 입증한 광주예술고등학교 무용과 학생들의 연습모습.

Large advertisement for 'KIN (주)국민법률경제대' (KIN National Law & Economics) featuring a detailed table of legal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and a slogan: '법원 부동산 경매정보' (Court Real Estate Auction Information). The table lists various legal services like bankruptcy, inheritance, and real estate matters across different regions.